

본회퍼의 “성도의 공동생활”을 읽고 (선교사들 온라인 책 읽기 모임) 2021.1/4- 2/15

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고,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가운데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내용이 깊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. 구원받음에 있어서도 오직 그리스도,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그리스도임을 온맘으로 고백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. (정지문-일본 선교사)

기독교 신앙 생활의 핵심은 공동체이다.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하나를 이루며 성장해 간다. 이 세대에 우리가 되 찾아야 할 유산이다.  
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중입니다. ‘참된 믿음 아래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?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?’ 고민하는 한 주입니다.  
다음 책도 기대가 됩니다.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가 주시는 살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. (강호진-베트남 선교사)

그토록 소망하는 공동체의 너무도 또렷한 청사진을 보게 해 주시고 그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위에서만 존재하며, 중보기도로 성령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도록 기도하며, 들어주고, 도와주며, 짐을 짊어져줄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실체가 되는 공동체! 이런 공동체를 주여 저 일본땅에 세우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.  
아멘. (김은옥-일본 선교사)

성도의 공동생활 책을 읽으며 다가온것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민했던 공동체의 모습과 삶에 대해 내 자신 먼저 재 정립을 다시 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 
일이 성취되도록 힘쓰기전에 주님이 이루고 싶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. (장미애-이집트 선교사)



선교사 성경읽기 Korean Missionaries PRS

분을 만난 것이다. 그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우  
 리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. 확고하고도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.  
 다. 만일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,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렸  
 다면, 이 사건에 베드로의 앞에 문장 반박할수있었다. 그들은 새로운  
 삶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들은 물었습니다. "정  
 제들이, 우리가 어찌할꼬?"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.

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의 사함을  
 받으라.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나  
 화 성취와 모든 면에 사함은 주 우리 하나님께 맡기든지 복되시  
 는 것임에겐 확신 것이다.

베드로의 권유를 보십시오. 그는 먼저 회개를 말했습니다. 회개  
 는 그리스어로 "회개하다"라고 합니다. 생각을 바꾸는  
 는 것입니다. 좀 더 확장하면 생각하는 방식, 삶의 가치, 삶의 양  
 식을 바꾸는 것입니다. 회개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  
 르던 삶의 길, 삶의 방식, 삶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삶  
 의 방식을 가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보십시오. 세우에서 처음  
 사역을 시작했을 때 진보한 것이 무엇입니까?



고성일	Gil Suh
정지문	오희영
일본 정지문	권보철
cho cho pyoung	sunheejang
Insook Park	hwansook Jung

선교사 책임기 Korean Missionaries JSU